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 ✓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 의지 UP!
(단,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
(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2018. 1. 17. 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세요.



Family

201809



2018년 9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Focus** | 송언석 국회의원 방문 외
08 **청백리** | 가스안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협약 체결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2 **우체통** | 울곡초등학교 4학년생 회사 견학
16 **일하며 즐기며** | 경주남산 문화유적답사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4 **新성장지도** | 속세를 떠나 속리(俗離)에 오르다 - 속리산과 법주사
30 **Storytelling** | 밀천은 두 주먹뿐 - 바람으로 머리 빋고, 비로 머리 감는 산 사람들을 마주한 심상
32 **기자칼럼** | '밥'의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의 근원
34 **생활과 과학** | 에어컨 없이도 냉방 유지하는 건축물의 비결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업무처리 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외
40 **한기氏の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46 **Poem** | 아이스크림과 통닭
47 **에코포토** | 녹빛 축제

통권 440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송언석 국회의원 방문

- 지역발전과 상생협력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8월 16일 우리 회사를 방문해 이배수
사장과 지역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방문은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관
련한 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한전기술이 에너지 기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배수 사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중이다”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했다.

2018년도 시민참여 혁신위원 위촉

-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의
적극적 혁신활동 추진

회사는 지난 7월 12일 '2018년도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회사의 혁신 추진계획 및 실행에 대한 대내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점을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적극적 혁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원회는 4인의 내부위원과 6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은 사업본부
(단) 및 연구소 추천 부서장이, 외부위원은 지역사회 추천과 시민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외부위원으로는 박선하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용준 김천대 융복합에
너지공학과 학과장, 성금화 (주)코리아테크 대표, 안규철 (주)태양기술개발 대표,
박성규 김천시 인사위원, 백남명 김천대 소방안전공학과 외래교수가 위촉되었으
며, 위원장에 박선하 관장이 호선으로 선임되었다.

2018년도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의견 개진, 혁신 추진과제 선정 및 혁신활동 모니터링, 혁신 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등 대내외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CEO의 소통 시리즈 첫 번째 ‘사장님이 쓴다’



CEO의 소통 시리즈 첫 번째로 ‘사장님이 쓴다’가 지난 7월 26일 실시되었다.

‘사장님이 쓴다’는 추천을 통해 선정된 부서에 사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과일이나 간식을 나

누며 경영철학 공유 및 업무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화하게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이배수 사장은 원자력본부의 원전안전센터와 원자력기술그룹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수박을 나눠 먹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배수 사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직원들과 기탄없이 대화하며, 더 많은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의 소통 시리즈는 앞으로 ‘사장님이 쓴다’ 외에도 ‘CEO-직원 간담회’, ‘화통 시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무역투자사무소 대표단 내방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온타리오주 무역투자사무소 대표단이 지난 8월 14일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선자 팬데이 대표와 전은석 상무관 등 온타리오주 무역투자사무소 대표단은 무역투자사무소 설립목적, 기능 등을 설명하고 신규원전, 가동원전, SMR 개발 및 폐로 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속개된 실무협의에서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수로 폐로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와 기술협력이 가능한 캐나다의 폐로 경험 보유기관을 우리 회사에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향후 회사는 지속적인 캐나다 원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타리오주 무역투자사무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협약 체결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반부패·청렴업무 교류 협력 —

회사는 지난 7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근 상임감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김동만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체 감사가구간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감사 성과 및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과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 전문분야 인력 지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우수 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의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되

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7월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감사 및 반부패 청렴업무 교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꾸준한 업무협력을 통해 부패척결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힘을 합칠 방침이다.



윤리데이 행사 실시

— 윤리데이를 맞아 전 직원 참여 청렴윤리 활동 전개 —



회사는 지난 6월 5일 윤리데이를 맞아 청렴윤리 의식확산을 위한 '윤리데이'행사를 실시했다. 윤리의 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리경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 회사는 윤리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의 청렴의지 다짐과 공유를

위해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직원 '청렴실천 자기 다짐' 서약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렴탐험대'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이 직접 청렴윤리 활동에 참여하여 즐기며 청렴실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렴탐험대는 청렴 실천사항이 쓰여 있는 돌림판에 다트를 던져 커피쿠폰 등 청렴경품과 부패·공익신고리플렛을 지급하는 등 게임형 청렴윤리 활동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본사 1층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청렴윤리 특강과 청렴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전 직원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청렴윤리 활동을 실시했다. 회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들 셋을 둔 가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가 달력에 적힌 한자

月, 火, 水, 木, 金, 土, 日을 자랑스럽게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둘째가 틀렸다며 고쳐 읽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사 일”

그 말을 듣고 있던 맏이가 호기롭게 나서며

너희 둘 다 틀렸으니 잘 들어 보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

“아휴, 실력이 왜 모두들 그 모양이냐,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저 방 가서 왕편 가져 와”

옥편(玉篇)을 왕편으로 아는 아버가

권위를 잡으려고 세 아들과 옥신각신 하고 있자

더 모르는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배고프겠다. 싸워도 먹고 싸워라.

막내야 마트에 가서 ‘행라면’이나 사와”

여기서는 또 신(辛)라면이 행라면이 됩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못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갑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학사 때는 모든 것을 알 것 같고

석사 때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박사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배움이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2018 공공기관 견학

울 · 곡 · 초 · 등 · 학 · 교 4학년생 회사 견학

회사는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진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울곡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회사 견학행사를 지난 7월 13일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울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발전소 영상 시청, 사옥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울곡초등학교에서는 공공기관 견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혁신도시의 자부심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김천여고, 김천울곡고등학교, 울곡초등학교 등 지역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견학 온 저희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앞으로도 더욱 멋진 회사 기대 할게요~

화이팅!!!

4학년 2반 10번 박지율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3일 금요일, 회사를 견학한 산지아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시골벽적인 저희들의 견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공기관이 하는 일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 매우 멋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전력기술 만해도 근무하시는 분이 약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다른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감작 놀랐어요. 저도 크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편견해감과 이익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한국전력기술 여러분, 감사합니다.

4학년 5반 12번 산지아

저는 이수경이에요.

오늘 견학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전력기술 알기, 전기 만들기 등에 대한 것 등을 매우 재미있게 들었어요.

중기의 발생, 태빈, 스텔, 벨브 등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고 퀴즈를 푸는 것 또한 재미있었어요. 퀴즈를 풀지 못해 공책을 못 받았지만요.

건물 28층 라운지에서는 우리 집, 학교, 마트 등이 한눈에 다 보였어요.

한국전력기술 덕분에 발전소가 건설되고 전기가 생산되니 저희가 불을 켤 수도 있고
물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4학년 3반 18번 이수경



한국전력기술에 계시는 기술자, 연구원 선생님!

저는 솔직히 한국전력기술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견학을 통한 발전소 영상 시청과 퀴즈로 조금이나마 알았어요.

우리 고장 김천에 한국전력기술이라는 멋진 공공기관이 있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와 발전소를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더운 날씨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발전소 설비에 고생하시는 기술자, 연구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4학년 5반 14번 우준형



안녕하세요?

울곡초등학교에 다니는 고현진이에요.

오늘 한국전력기술을 견학하면서 발전소 건설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다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8층에서 혁신도시를 내려다

본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퀴즈로도 다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원리와 언제 한국전력기술이 설립되어졌는지가

흥미로웠어요. 항상 에너지를 만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견학을 통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학년 3반 4번 고현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울곡초에 다니는 이하송이라고 해요.

오늘 울곡초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한국전력기술에 견학을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번 견학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활에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발전소를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적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더운 여름에 전기 덕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퀴즈를 푸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선물까지 받아 기분이 더 좋았어요. 신기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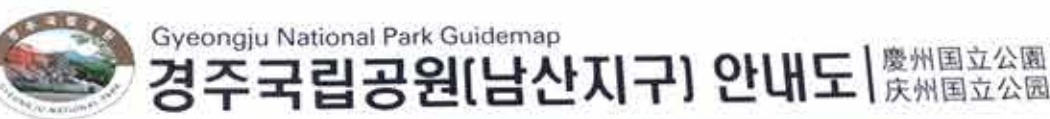
28층에서 김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짧은 견학 시간이라 생략했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념품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4학년 3반 19번 이하송

경주남산 문화유적답사

경주 남산은 신라시대의 불교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면서 승산신앙, 암석신앙과 연관된 불교문화가 남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절터 112곳(암자터 포함), 석불 80체, 석탑 51기 등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었다. 남산 또한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있는 경주 나정, 신라 최초의 궁궐터인 창림사 유적, 서쪽 기슭의 포석정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화랑 김유신의 효와 충절을 엿볼 수 있는 경주 천관사지가 있는 곳으로 신라 개국 이래 줄곧 신라인과 호흡을 같이하며 신성시 되어온 산이다.



고위산(494m)과 금오산(468m) 2개의 봉우리가 솟은 남산은, 남북의 길이는 8km, 동서의 넓이는 4km이며 완만한 동남산과 골이 깊고 가파른 서남산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40여 계곡이 있고, 동쪽에는 낭산과 명활산, 서쪽에는 선도산, 벽도산 및 옥녀봉이, 북쪽에는 금강산과 금학산이 솟아 있다. 동서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등산코스가 다양하며 산이 그리 높지 않아 가족들과 가볍게 산보를 즐기기에 딱 적당한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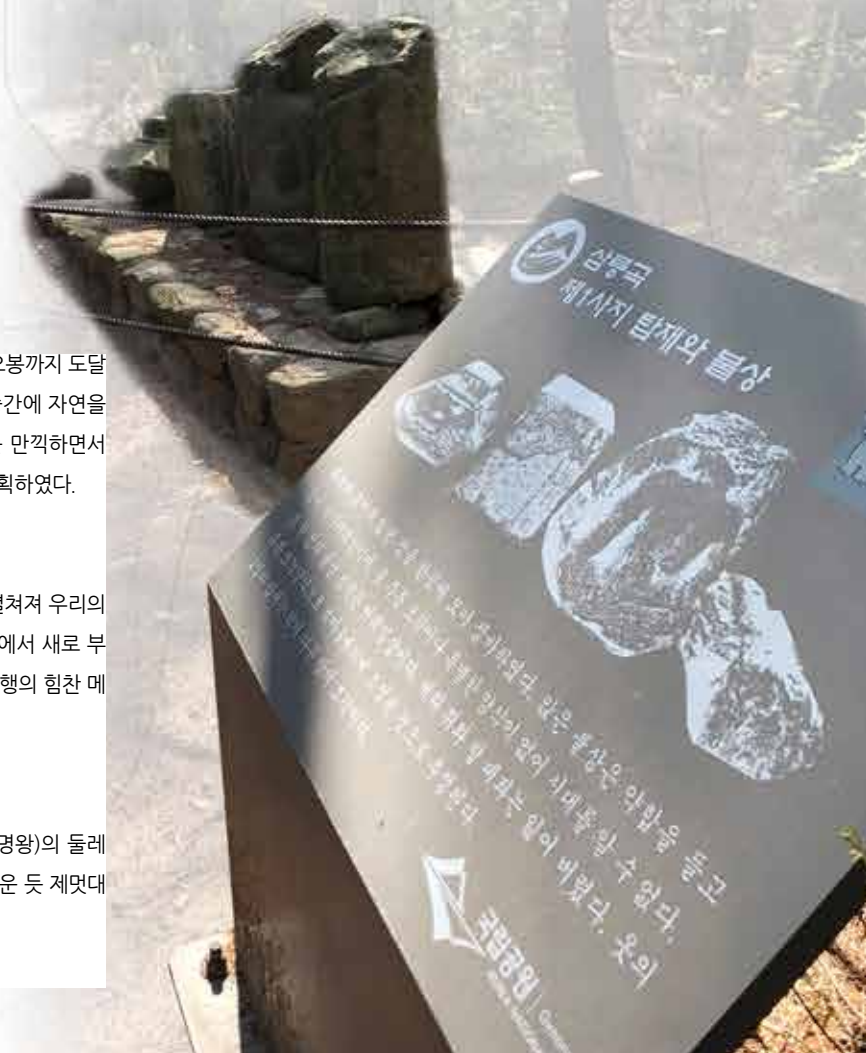
우리는 여러 개의 코스 중, 삼릉에서 시작하여 바둑바위를 거쳐 금오봉까지 도달 후, 통일전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하였다. 약산은 아니나 중간 중간에 자연을 벗 삼은 유적지와 유물이 제법 있어 천천히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만끽하면서 즐기자는 취지로, 등산은 2시간 반, 하산은 1시간 반, 총 4시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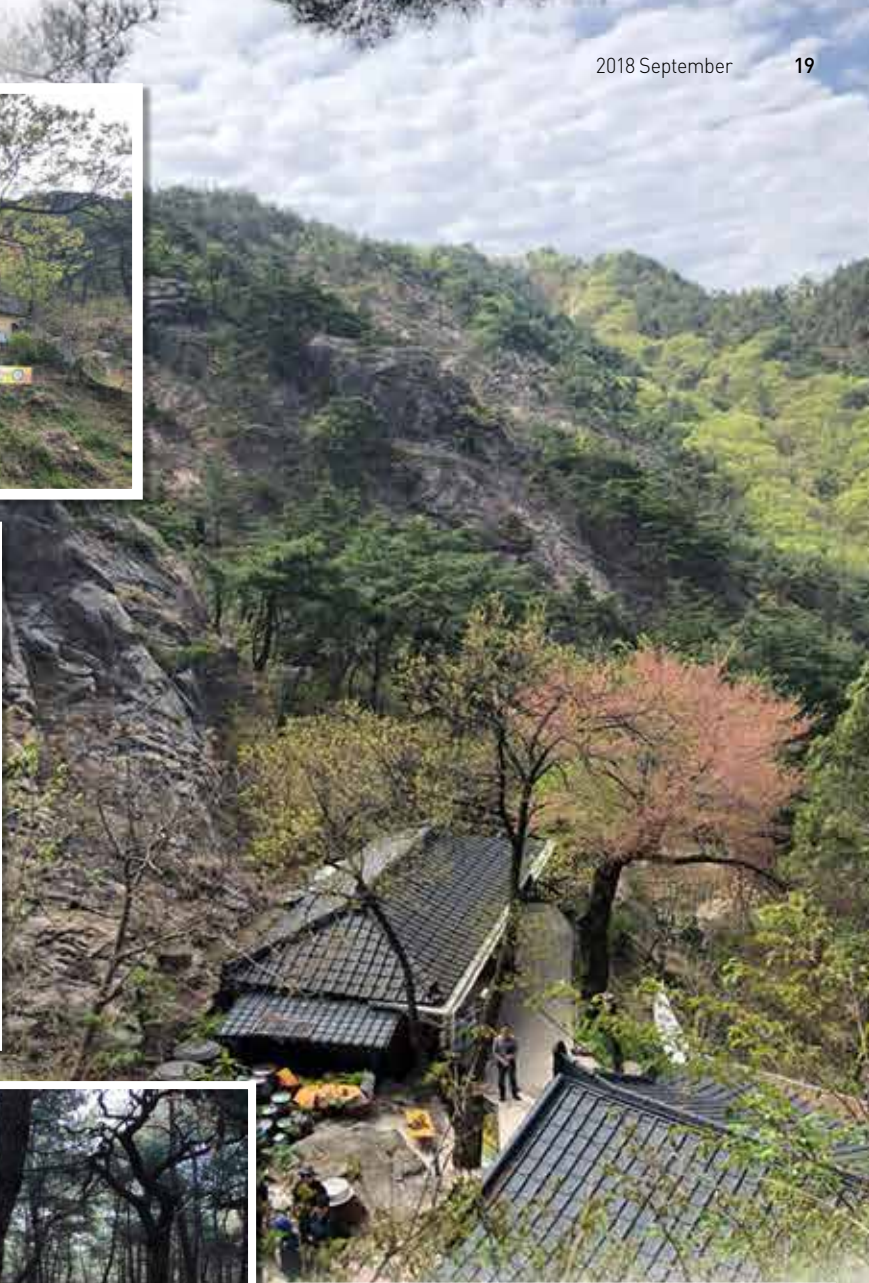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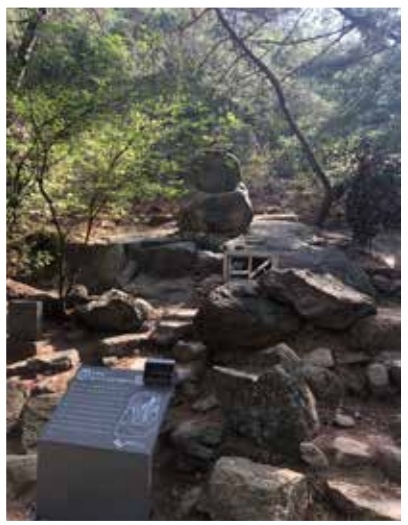
신라시대로 떠나는 역사 산행

컬처데이 당일, 하늘은 미세먼지 없이 푸르른 파스톤 색으로 넓게 펼쳐져 우리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데에는 손색이 없었다. 등산 진입점인 삼릉에서 새로 부임하신 이창열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가볍게 몸을 풀어 산행의 힘찬 메아리를 울렸다.

삼릉 (사적 219호)

삼릉(박씨 삼왕의 무덤,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둘레 이자 산의 초입 길인 삼릉 소나무 숲은 1000년의 오랜 세월이 버거운 듯 제멋대로 굽이 친 노송들이 집단을 이루며 오묘한 장관을 뽐내내고 있었다.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

삼릉 주위에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 소나무(도래솔)를 심었다고 한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나무껍질이 거북이 등처럼 보이기도 하고 용의 비늘을 닮았다고도 해 신성시 여겨왔다.

삼릉 소나무 숲은, 국내 사진작가인 배병우 씨가 이곳의 소나무 숲을 사진에 담은 것을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사진을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한국사진작가의 작품으로는 최고가에 팔리면서 더욱 유명해져,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가 도착한 아침에도 소나무 숲 주변에는 사진작가들이 부지런히 카메라에 집중하며 셔터를 연신 눌러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냉곡 석조여래좌상

영속적이고 무한할 것만 같았던 소나무 숲을 지나,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불교의 성지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한 듯 탑의 재와 부서진 불상 조각,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히 빛나는 석조여래좌상, 마애관음보살상, 등 각종 유물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삼릉에서 개울을 따라 계곡으로 약 500m 쯤 올라가면 길 옆 바위 위에 머리없는 석불 좌상이 앉아 계신다. 높이가 1.6m에 무릎 너비가 1.56m나 되는 큰 좌불이다.



선각육존불 (지방유형문화재 21호)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골짜기 왼쪽에 자리 잡은 넓은 바위에 선각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다. 동쪽바위 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바위 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다. 마치 신라의 불교 회화를 보는 듯했다.

바둑바위

각종 불교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바둑바위에 도착했다. 냉골 암봉 바위산 꼭대기에는 금송정터라고 전해오는 건물터가 있다. 그 옆 바위 발판에는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며, 신라 때 옥보고가 거문고를 켜던 곳이라고 한다. 바둑바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단번에 떨쳐낼 수 있을 만큼 쪽 펼쳐진 경주시를 눈에 담으며 답답한 가슴을 짹 열수 있었다. 개중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에 그간 쌓인 울분이라도 토해내는 듯, 야~! 호~! 하며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보는 직원들도 있었다.



금오봉

바둑바위에서 약 30분간 능선을 타고 남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에 이르러 우리는 파이팅 샷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아침에 준비했던 백설기 떡에 초코바를 곁들여 허기를 달랬다. 금오산은 해발 468m로 이곳은 냉골, 포석계, 지바위굴, 비파굴, 약수굴 등의 분수령이 된다.

아쉬운 하산

하산 길에는 당초 예상했던 사자봉과 남산부석을 거쳐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닌, 비석재와 이영재 길을 통해 하산을 하였다. 하산 중 길을 잘못 들었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즐거우면 그만인 것을 하며 하하 호호 웃으며 답소도 나눠가면서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산행을 즐기며 천천히 내려왔다. 내려오는 도중, 한 대학교에서 전 학과 학생들이 등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각 과의 선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며 전공분야의 다양성도 살펴보았다. 또한 서로 영차영차 이끌어 주는 대학생 무리를 보며 예전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고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남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통일전(태종무열왕,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 영정 등이 있는 곳이며 남산 칠불암과 전망대로 오르는 등산로도 설치되어 있음)을 가볍게 둘러보고, 주변 맛집으로 이동하여 이번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언제부터인가 산이라 함은, 정상을 반드시 찍고 내려와야 한다는 등정주의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다 보니 등산이라 하면 높은 산이어야 하고, 이를 내가 정복하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등산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산을 오르는 것’으로 옛 조상들은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굳이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 그 자체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움을 찾는 자연미에 대한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현대말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 남산 산행은 직원들과 함께 자연의 정기로 심신도 단련하고, 신라시대의 유물도 접하며 재미도 찾을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문화유적답사가 되었던 것 같다. 월성 현장은 경주의 끝자락과 울산의 경계가 만나는 곳에 있어 가볼 곳이 다양한 것 같다. 다음에 다가올 컬처데이 행사를 기약하며 이번 문화행사에 대한 기행을 마친다. 월성 현장 파이팅~!! E&C

C ommunication

거봐라

어제의 호들갑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나 어렸을 적엔 이보다 더한 더위에

아버지는 나락 논에 농약을 치셨고

어머니는 피약볕에 붉은 고추 따느라

눈물 같은 땀을 흘리셨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고 밥 먹고 잠자면서

백 년 만의 더위를 타하며 유난 떨다니.

추억이 되면 폭염마저 그리워질지도 몰라.

어느새 벼이삭 고개 숙이고

억새 춤추는 그 가을이 왔다.

높아진 하늘아래 고추잠자리 맴돌고

밤이면 담장 아래 귀뚜라미 합창 요란하다.

시원해서 좋다고 웃다보면 인생도 어느새 가을.

참 미련하지.

늘어가는 것도 모르고 가을만 기다린 거네.

인간도 자연에 속한다면 노랫말처럼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해 두자.

참새는 날면서 노래하고

사람은 날지도 못하면서 말들이 많다.

구만리 창공을 나는 새 빈손으로 홀가분 한데

어찌하여 아직도 끄끔 내려놓지 못하는지.

한세상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

새나 사람이나 입 닫으면 그만 아니던가.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 듯

신은 공평하다고 했어.

지금 힘들어도 너무 아파하지는 말자.

이 가을엔 좋은 일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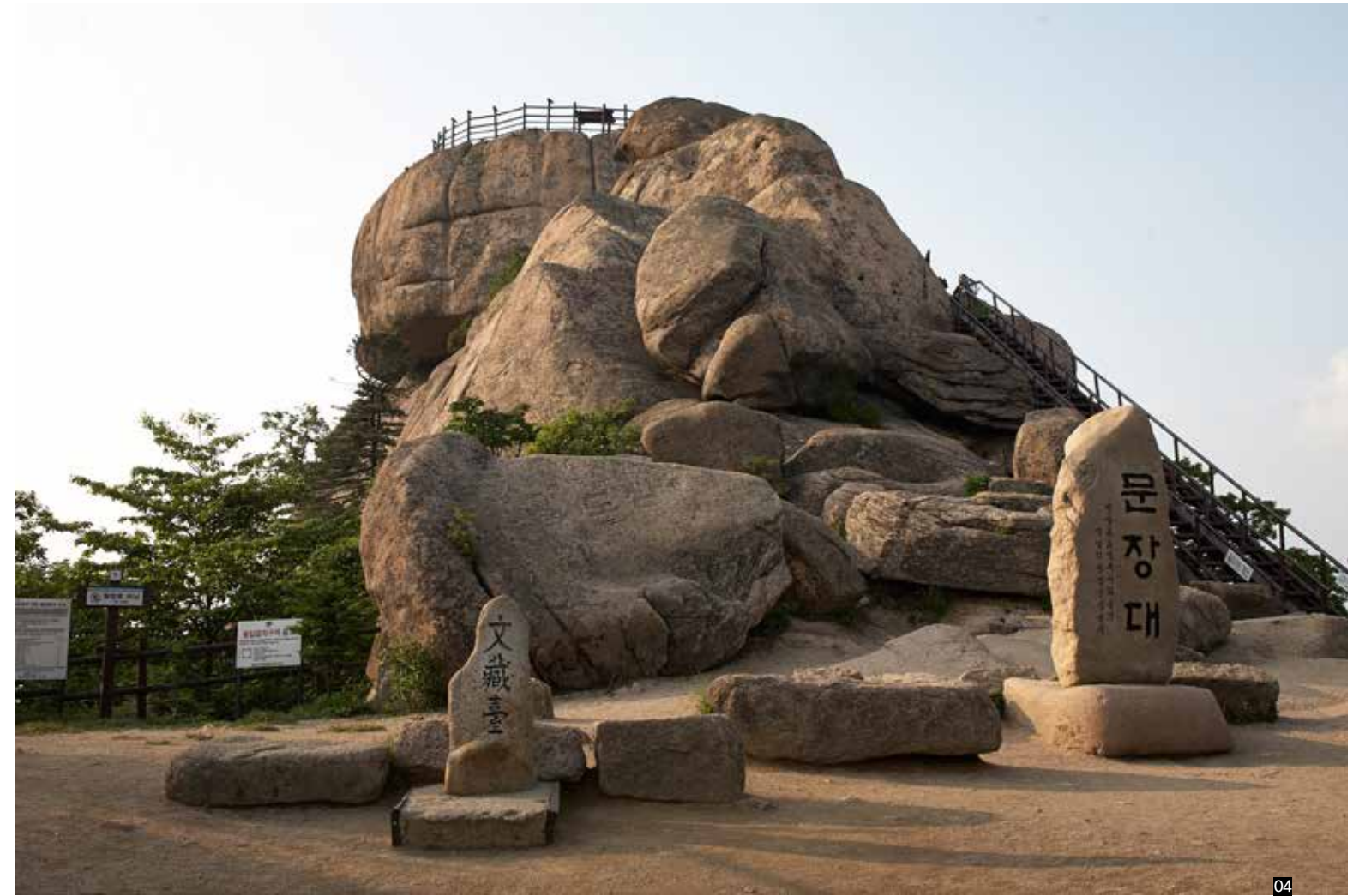
속세를 떠나 속리(俗離)에 오르다

속리산과 범주사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
산은俗을 떠나지 않는데俗이 산을 떠나는구나

— 백호 임제

해발 1057m, 지리산을 출발한 대간의 능선이 전라도와 경상도 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충청도에 이르는 산자락은 속리산이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필두로 여덟 개의 봉우리와 여덟 개의 큰 바위가 백두대간의 능선을 잇는다. 속리산(俗離山). 이름을 풀자면 속세와 격리된, 속세를 떠난 산이다. 속리산의 능선에 오르면 드넓은 산자락과 기암절벽 너머로 풍요로운 들판들이 군데군데 펼쳐진다. 속세에서 벗어나 바라보는 속세의 모습이 평온하기만 하다.



대간의 능선을 따라 속세를 벗어난다.

속리산 중주는 보통 상주시 화서면의 비재나 갈령삼거리에서 시작된다. 능선을 따라 문장대에 이르러 늘재나 밤티재까지 길이 이어지지만 문장대~늘재 구간이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되어 문장대에서 길이 멈추어진다. 비재에서 시작된 길은 주봉인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형제봉을 지나며 만나는 속리산 주능선과 산자락 풍광이 산행의 고단함을 다독여준다.

팔부능선을 지나면 전망바위가 나타난다. 바위 턱에 걸터앉아 땀을 닦자 속세의 길들이 아련해진다. 굳이 산의 이름을 음미하지 않아도 속세와 산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만수동 계곡의 무성한 숲과 기암절벽, 그 너머의 그윽한 능선풍경이 국립공원 속리산의 위용을 보여준다. 천왕봉에 오르자 문장대까지 불쑥불쑥 솟아오른 바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바위들은 제각각 생김새도 독특하고 저마다 각자의 이름과 이야깃거리들을 간직하고 있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비롯해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보현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 등 8개의 봉우리와 문장대, 입석대, 경업대, 배석대, 학소대, 신선대, 봉황대, 산호대 등 8개의 대(臺)가 능선을 이루어 옛날부터 속리산은 소금강산이라고 불리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돌의 형세가 높고 크며, 겹쳐진 봉우리의 뾰족한 돌 끝이 다보록하게 모여서

01 농선에서 보이는 만수동 계곡 02 법주사로 향하는 오리굴길 03 일주문에서 대찰의 풍모가 느껴진다 04 문장대는 주봉인 천왕봉보다 인기가 좋다 05 사찰인근에 새로 생긴 산책로, 세조길



처음 피는 연꽃 같고, 또 햇불을 멀리 벌려 세운 것 같기도 하다. 산 밑은 모두 돌로 된 골이 깊게 감싸고 돌아서, 여덟 구비 아홉 돌림이라는 이름도 있다. 산이 이미 빼어난 돌 이고, 샘물이 돌에서 나오는 까닭에 물맛이 맑고 차갑다. 빗발 또한 아청빛이어서 사랑스 러운데, 충주 달천의 상류이다.” 라고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수사로 적고 있다. 그리고 보니 속리산을 삼파수의 산이라고도 한다. 속리산의 물들이 낙동강과 한강, 금강으로 나 뉘어 흐르기 때문이다.

극락으로 향하는 관문 문장대

능선의 동쪽 끝에는 속리의 또 다른 주봉 노릇을 하고 있는 문장대가 자리하고 있다. 문장대를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여기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세조가 요양 차 속리산을 들렀을 때 꿈에 월강태자가 나타나 “동쪽에 시오리 떨어진 곳에 영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할 것” 이라고 하였다. 이튿날 세조가 신하들과 그 봉우리를 찾아 오르니 그 위에 삼강오륜이 담긴 책이 한권 놓여 있었다. 세조는 엎드려 기도한 뒤 신하들과 강론하고 운장대라는 바위 이름을 문장대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왕이 오른 이유에서일까? 이후 민가에서



06

는 문장대를 세 번만 오르면 죽어서 극락 간다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변잡한 일상을 벗어나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는 일은 종종 인생과 비유된다고 했던가? 힘겹게 한걸음 한걸음 내디며 정상을 밟는다. 정상은 가쁘고 고단한 허파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잠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내리막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산행자에게 내리막은 두려운 길이 아니다. 다시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조화로운 일 뿐이다.

속리산 오르는 길

문장대 코스(15.8km, 6시간 30분 소요)

법주사 - 세심정휴게소 - 보현재휴게소 - 냉천골휴게소 - 문장대 - 신선대 - 경업대 - 금강휴게소 - 비로산장 - 세심정휴게소 - 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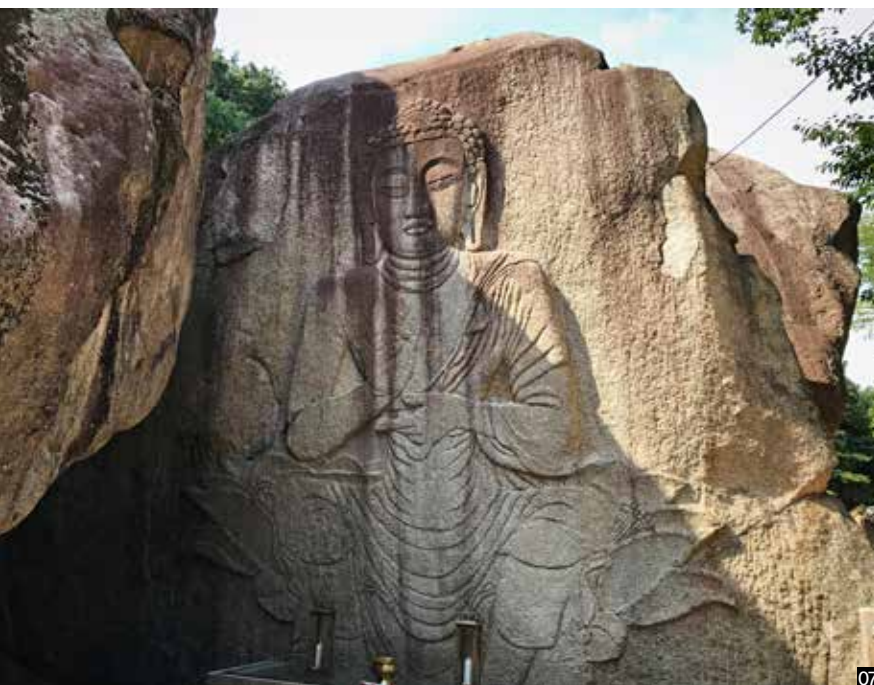
천황봉 코스(16.5km, 8시간 소요)

법주사 - 세심정휴게소 - 비로산장 - 경업대 - 신선대 - 입석대 - 비로봉 - 천황봉 - 상고암 - 상환암 - 세심정휴게소 - 법주사

오송폭포 - 문장대 코스(3.3km, 3시간 소요)

보은의 대찰 속리산 법주사

올해 7월, 유네스코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일곱 절을 '산사(山寺)'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산사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절을 말한다. 전 세계에 많은 절이 있지만, 한국처럼 산에 사찰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나라는 스님이 탁발하거나 집과 절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도심 주변에 절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한국 산사



07



08

06 법주사 초입에 자리한 정이품송 07 절마당 한 귀퉁이에 자리한 마애여래의상 08 법주사의 파노라마 뷰 09 법주사 석련지는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석조형물이다



09

의 가치를 유네스코가 높게 평가한 이유다. 한국에 전통 사찰로 등록된 절은 약 1000여 개다. 이 많은 사찰 중에 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전통 사찰' '산지에 위치' '국가 지정문화재 보유' '7~9세기 창건' '사찰 관련 역사적 자료의 신빙성' '원 지형 보존' '승려 교육기관 운영' 이라는 기준에 모두 들어맞는 곳이 선정된 일곱 사찰이었다고 밝혔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33)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다른 고찰들이 그렇듯이 이 절집에도 재미있는 창건 설화가 전해져 온다.

의신조사가 인도로 구법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흰 나귀 등에 불경을 얹고 사찰을 지을 곳을 찾아다녔다. 곳곳을 돌다가 지금의 법주사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놈의 나귀가 더 이상 갈 생각을 않고 계속 한자리를 맴돌더라. 이를 이상히 여긴 대사가 주위를 살피니 보면 불수룩 절을 짓기에 안성맞춤인지라 불경을 이곳에 내리고 절을 지었다. 그리고 부처의 법이 이곳에 머문다는 뜻에서 법주사라 이름 지었다.

변잡한 상가지구를 지나 매표소에 이르면 풍광은 아늑해진다. 법주사 오르는 길은 오리숲으로 유명하다. 거리가 오리쯤 된다하여 오리 숲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전나무와 소나무, 굴참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무성하다. 근래에는 세조길이라는 산책길이 개설되어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다.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이 모셔진 천왕문에 이른다. 법주사의 천왕문은 전국의 절집 가운데서도 가장 잘 만들어진 것으로 꼽힌다. 전각은 안정감이 느껴지고 안에 모셔진 사천왕의 눈매는 더 깊고 날카롭다. 법주사는 문화재 박물관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탑 팔상전(국보 55호)을 비롯해 쌍사자 석등(국보 5호), 석련지(국보 64호)와 대웅보전(보물 915호), 원통보전(보물 916호), 사천왕 석등(보물 15호)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자리하고 있다. E&C

밀천은 두 주먹밥

- 바람으로 머리 빋고, 비로 머리 감는 산 사람들을 마주한 심상

일기분류 : 유산일기

출	전 : 순두류록(順頭流錄)
시	기 : 미상
인	물 : 광태중
주	제 : 놀이와 유람, 유람과 감상
장	소 : 경상남도

◆ 조선시대 화전민의 모습

지리산을 가는 도중에 보면, 이름난 집안이 사는 촌락들은 집들마다 꽃이 피고, 기름진 들판에서는 벼와 조, 기장 등의 곡물이 나고, 훌륭한 인물과 특출한 선비가 많아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 가히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찾아 떠났던 서불이 돌아가지 않을 만한 낙토다. 그러나 하늘에는 음양(陰陽)이 있고 땅에는 화이(華夷)가 있어서, 사람 살아가는 데도 구역이 구분되는 것인가. 두류산을 따라 유람하며 두루 보면, 대개 천왕봉이 가까워질수록 산촌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어렵다. 바위굴을 집으로 삼고, 구름 골짜기를 밭으로 삼아 참마를 심어 벼로 대신하고, 나물을 캐어 고기로 삼으며, 바람으로 머리를 빋고 비로 머리를 감으며, 장차 한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일하며 잠시도 쉬지 못하며 산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비록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몹시 고생을 하며 살더라도 어찌 전날 좋아하고 즐기던 것보다 못하겠는가? 오늘의 고생은 비록 나의 몸을 수고롭게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로 달갑게 여기며 즐겁다. 전날의 이른바 백 가지 좋아함과 열 가지 즐거움은 내가 실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의 심두(心頭)의 고기를 깎아낸 것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예전을 돌아보면 오늘 어려움은 어떠하며, 전날 즐거움은 어떠한가? 나의 밭을 내가 갈고 나의 술을 내가 마시며, 나의 책을 내가 읽는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즐기고 사람이 타는 관현악을 좋아하며 밝은 달 아래 호탕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이웃 벗이 칼을 품은 것보다 낫다. 또한 풍속에 따라 제 몸에 치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누웠다가 일어나 출입하며 마음껏 즐기니, 저 밭도 편안히 하지 못하며 사는 자들에 비하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산중에 사는 즐거움이 참으로 아득하다.



1922년, 이 해 3월에 광태중은 외롭게 지팡이와 나막신 행장(行裝)을 차려 두류산(頭流山, 지리산)으로 들어가 대중 간략하게 구경을 하였다. 예전에 산을 논하는 사람들이 방장산(方丈山, 지리산)은 장엄하나 수려하지 않다는 말이 참으로 잘 한 비평이라고 여겼다.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아 호남과 영남의 사이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남국(南國)의 진산(鎭山, 고을에 있는 큰 산)이 되었다. 이름난 집안의 여러 촌락마다 크고 작은 집들과 절들에서 꽃이 피고, 기름진 들판에서는 벼와 조, 기장 등의 곡물이 난다. 인물도 훌륭하고 특출한 선비가 많아 세상의 줄기와 기둥이 되어 나라에 이름을 날린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 백성들이 낙토(樂土, 늘 즐겁게 살 수 있는 곳)를 얻어서 사는 것이다. 광태중은 두류산을 따라 유람한 뒤로 두루 보고 다 터득했다. 대개 천왕봉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살기는 해도 매우 성글었다. 세 집정도 사는 마을이나 열 사내조차 만나기 어려웠다.

좁은 집에서 풀(煙草)과 나무이것을 잘라 그릇을 만드느라 생업(生業)을 삼고 피나무와 도토리, 개암 따위를 먹으며 침포(葛布)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산귀(山鬼, 산에 산다는 일종의 정령(精靈))를 동반자로 삼고 사슴을 벗으로 삼아 온갖 고생을 하는데, 쫓대 같은 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어 눈과 코도 가늠할 수 없어, 그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모두 하늘로부터 오성(五性)을 성품으로 부여 받았고, 우리 선대 성왕(聖王)의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깊은 인자함과 두터운 혜택이 사람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의 성품을 받은 처음부터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공자(孔子)가 어진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은 땅을 피하고, 그 다음은 색을 피하며 그 다음은 말을 피한다고 하였음. 《논어(論語)》 현문(憲問)에 보임.] 사람을 피하는 것이 자신을 수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데, 어찌 자신을 수양하고 자산을 보존한다면, 우리 낙토친척과 친구며 허다한 좋은 것, 즐거움을 버리고, 높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이처럼 온갖 고생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가? 나의 밭을 내가 갈고 나의 술을 내가 마시며, 나의 책을 내가 읽는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즐기고 사람이 타는 관현악을 좋아하며, 밝은 달 아래 호탕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이웃 벗이 칼을 품은 것보다 낫다. 그리하여 제 목과 몸에 치장을 해야 하는 풍속의 변화에 구애 받지 않고, 누웠다가 일어나 출입하며 마음껏 즐기니, 저 밭도 편안히 하지 못하며 사는 자들에 비하면 어떠한가?

산중에 즐거움이 참으로 아득하다. 드디어 노래하기를,

山重重兮雲深(산중중해운심) 산은 겹겹인데 구름이 깊고

澗潔潔兮樹陰(간결결해수음) 시냇물 깨끗하니 나무 그늘지네.

念虎號兮晝沈(념호호혜주침) 호랑이가 부르짖다 낮에 잠잠함을 생각하니

甘此山兮曾尋(감차산해증심) 이 산을 일찍 찾은 것이 다행일세.

採薪歸兮窮齡(채궁귀혜궁음) 궁궁이 캐어 돌아오니 구름이 흐릿한데

放鷄攢兮陽林(방계독혜양림) 닭과 송아지 양지 숲에 풀어놓네.

以人間之可好(이인간지가호) 사람을 좋아할만 하하지만

誰背知我說此心(수배지아설차심) 어느 누가 내 마음 말하는 것을 알아주랴. 라고 하였다.

돌아가 이를 기술하여 적었으니, 때는 곧 임술년(1922) 모춘(暮春, 음력 3월)이었다. E&C



‘밥’의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의 근원

“내가 니 시다바리가?”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대사는 우리말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있다. “내가 니 밥이가?” 이때 ‘밥’은 하찮은 존재이다. 남에게 놀려 지내거나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다. 밥뿐 아니라 밥을 담는 그릇도 싸잡아 비하된다. ‘밥통’이란 말은 제구실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인다.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 사람 밥맛이야.”

그러나 세상에 밥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까? 또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밥맛’이다. 사실 우리는 ‘밥통’을 챙기기 위해 일생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게 요즘 세태다. 우리는 공기나 물처럼 밥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찮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다.

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풍요의 시대’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밥’ 문제이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오히려 굶어 죽는 사례가 드물었다. “굶어 죽기는 정승 하기보다 어렵다.”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치랴.” “다 제 먹을 것 타고난다.” 이런 속담 속에는 적어도 먹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여지가 컸음을 말해 준다. 또 공동체적 정신이 굶는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찮은 ‘밥’은 옛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

그러나 이젠 옛말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도 실은 ‘밥’ 문제에서 비롯된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은 2위다. OECD 평균(1707시간)보다 연간 500시간 더 많이 일한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환경은 개발 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출산율은 최하위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35만명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다. 지난 2분기에는 이 수치가 0.97까지 떨어져 ‘인구절벽’이 현실화 됐다.

‘밥통’을 지키기 위해 뼈빠지게 일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 들어서 비정규직이 상승하고 지니 계수가 높아지

고 있는 상황이 출산율을 떨어트리고 심지어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밥벌이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 된 셈이다.

‘밥’ 문제의 근원은 불균형에 있다. 한쪽에서는 못 먹어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 탈이 난다. 기아와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비만과 당뇨 등 거의 모든 현대병이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과식의 종말>에서 케슬러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식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이면에는 식품업계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식품회사들은 식품에 설탕, 지방,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 음식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그런 음식을 더욱더 찾게 만든다. 비만은 개인 습관보다 식품산업이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리프킨도 <육식의 종말>에서 후진국의 기아



가 선진국의 과다한 육식 탓이라고 지적한다. 소에게 먹이기 위한 곡물사료 재배로 10억 명 이상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가축이 먹어 치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인다.

몇 안 되는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세계 곡물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도 기아와 남북 간 격차의 요인이다. 그들은 덤핑이나 매점매석 전략을 수시로 구사해 이윤 극대화를 노린다. 반면 에티오피아나 아이티 같은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게 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세계 식량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농업국이면서도 곡물회사들의 농간에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밥 문제 해결 관건.. 불균형 해소에 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밥’의 불균형이 저출산 등 온갖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 곧 ‘밥벌이의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경제성장에도 장애가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계층간 대립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밥’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밥’을 둘러싼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인구 위기’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 원인이 고용 문제, 청년층의

소득 문제, 주택 문제 등 여러 사회·문화·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인 불안이 가장 큰 걸림돌임에도 단순히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꾸준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차근차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할 때 그제야 ‘아이를 낳고 싶다’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프랑스도 구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쓰면서 출산율을 평균 2.01명까지 끌어 올리기도 했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인식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명제가 아닐까. **E&C**

에어컨 없이도 냉방 유지하는 건축물의 비밀

에어컨 없이는 단 1분도 견디기 어려운 나날이다.

현대 기술이 주는 축복에 젖어 더위를 피하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에어컨이 없을 때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더위를 피하는 고전 건축의 지혜

고전 건축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한 냉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결은 바로 물과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저택에서 중원(Atrium, 안마당)은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다. 아트리움에는 보통 '임플루비움(Impluvium)'이라는 사각형 빗물받이 겸 연못을 만들어두는데, 비열이 큰 물이 중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침실을 말 그대로 자는 용도로만 활용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햇볕이 들어오면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아트리움에서 보냈다. 또 다른 개방공간인 페리스타일(Peristyle)도 마찬가지였다. 기둥과 처마로 둘러싸인 공간인 페리스타일에는 정원이나 채마밭을 두곤 했는데, 식물들이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온도조절에 중정(中庭)을 활용하는 방식은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의 알람브라(Alhambra) 궁전이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알람브라 궁전은 가운데의 커다란 정원을 방들이 사각형으로 요새처럼 둘러싼 구조다. 중정에는 큰 연못이 있고 이곳으로부터 사방으로 수로가 뻗어 나와 방 안쪽까지 물이 흘러든다. 중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한편으로 효과적인 냉각장치 역할을 한다. 건물의 한가운데에 연못 정원을 두는 건축양식은 이슬람 세계에 오랜 시간 동안 장려돼 이른바 '지중해식 중정'으로 정착했다.

한여름, 전형적인 지중해식 중정은 길거리보다 온도가 섭씨 9도나 낮다. 중정의 시원한 공기를 이용하면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비아 대학에서는 지중해식 중정의 시원한 공기를 능동적으로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냉각기법을 개발해 말라가 호텔에 적용함으로써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자연 냉각의 또 다른 키워드인 바람 역시 여러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전통 한옥이 바람을 이용한 냉각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다. 한옥은 앞뒤로 트인 대청을 사이에 두고 텅 빈 마당을 집 앞에, 식물을 심은 후원을 집 뒤에 둔다. 햇볕을 받으면 맨땅인 마당이 빨리 뜨거워져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식물이 심긴 후원으로부터 시원한 공기가 마당 쪽으로 흘러



든다. 이 공기가 대청을 지나면서 집 전체를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통째로 들어 올려 아예 벽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들문을 설치해 냉각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옥이 수평적인 공기의 흐름을 이용했다면 이슬람 사원은 수직적인 공기 흐름을 활용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건축가인 시난(Mimar Sinan)은 그의 대표적인 술탄아이마니에 사원에 수직적인 환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온도 조절과 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난은 양초와 램프에서 생긴 그을음이 사원의 내벽을 더럽히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심했다. 공간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기가 탁해진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시난은 출입구 위의 작은 공간으로 내부의 후덥지근하고 지저분한 공기를 빼내고 바닥에 둔 관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동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왔다

사실 공기 흐름을 이용한 냉각의 진수는 인간이 아닌 흰개미에게서 볼 수 있다. 흰개미의 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통로가 복잡하게 얽혀 개미탑 표면의 수많은 구멍을 통해 바깥과 연결된다. 흰개미는 곰팡이와 버섯을 키우는 부분과 주요 생활공간을 집의 아래쪽에 두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이 집 내부의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서 개미탑의 위쪽 구멍을 통해 덥고 탁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아래쪽 구멍을 통해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다.

흰개미는 개미탑의 구멍들을 열고 닫으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집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흰개미의 환기 시스템은 이들의 주 서식지인 아프리카 초원에서 빛을 받는다. 외부의 기온은 한낮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데, 흰개미집의 내부는 항상 섭씨 29~30도 정도로 유지될 만큼 효율적이다.



사진 2. 에어컨 없이 실내온도가 섭씨 24도로 유지되는 짐바브웨의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출처: wikipedia)

짐바브웨 출신의 건축가, 믹 피어스(Mick Pearce)는 자국 수도인 하라레에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를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아프리카의 에어컨 시설이 없는 쇼핑센터라니, 황당한 요구였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지만 피어스는 흰개미의 환기시스템을 모방해 최초의 대규모 자연냉방 건물인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를 건설했다. 구조는 간단했다. 건물의 가장 아래층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꼭대기에 두른 공기를 빼내는 수직 굴뚝을 여러 개 설치한 후,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자용량 선풍기를 설치했을 뿐이다.

단순한 구조였지만 효과는 놀라웠다. 건물 내에서 더워진 공기가 꼭대기의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고 아래쪽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에어컨 없이도 실내온도가 섭씨 24도 정도로 유지됐다. 전력이 소모되는 곳이라고는 공기 순환을 거드는 선풍기뿐이었다. 이 간단한 시스템 덕분에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는 동일한 규모의 건물의 10%에 불과한 전력만을 사용한다. E&C

Culture

Festival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8

기 간 : 9월 28일 ~ 10월 7일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욱사로 239(윤흥동) 탈춤공원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이다. 1997년 안동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탈춤페스티벌 97’을 개최하여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집중육성 축제’, ‘전국축제종합평가 1위’, ‘전국최우수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거쳐 ‘2012년부터 3년 연속 ‘명예 대표축제’,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2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공연과 중국, 터키, 볼리비아 등 12개국

의 외국 탈춤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미술대전, 탈놀이대동난장, 나만의 탈 만들기, 탈춤 따라 배우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안동민속축제가 함께 개최되어 차전놀이, 뽕다리밟기 등 안동의 전통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www.maskdan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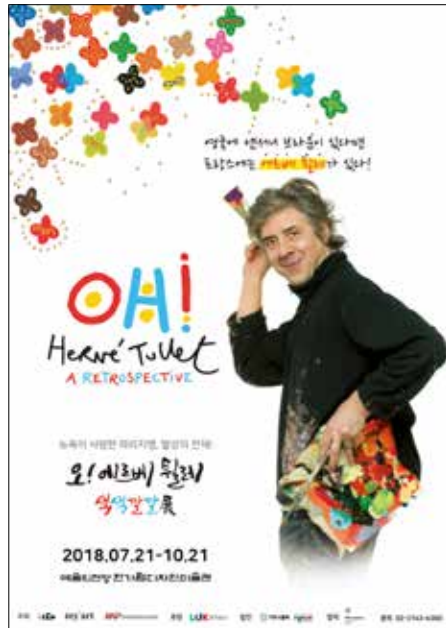
Exhibition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기 간 : ~ 10월 21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990년부터 「엘르」 「르 몽드」 「리르」 「양팡 마가진」 등 프랑스 잡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잡지에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했다. 이후 일러스트레이션과 회화 작업을 하고 1994년부터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현장 어린이 교육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 미술에 접근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영유아들을 위한 책을 출간하고 있다. 2007년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책을 출간했고 놀이를 통한 영유아 통합적 감성미술책 시리즈 <색색깔깔>도 출간되었다. 볼로냐 아동 도서전 논픽션 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 글 작업도 함께 하는 에르베 툴레는 두 아들과 어린 딸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얻고 있다. 전통적인 작품 감상 방식인 시각을 통한 감상을 넘어 다중감각과 공감각으로 감상하는 신개념의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 진행형의 대규모 융합전시이다.

www.sacticket.co.kr



Book

수학이 필요한 순간 : 인간은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모든 삶은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과 우주에 대한 탐구를 현대 수학으로 풀어낸 7개의 강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연산, 매일 이야기하는 확률, 쉽게 그리는 좌표 등도 한때는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이론이었다.

페르마, 뉴턴, 아인슈타인은 물론, 지금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수학 이론들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상식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수학적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 옥스퍼드 대학 정교수이자 세계적인 수학자 김민형 교수. 그가 인간의 사고 능력과 우주에 대한 탐구를 총 7개의 강의를 통해 풀어냈다. ‘수학이 필요한 순간’은 현대 수학의 대가가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의 세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언어로 설명한 놀라운 작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법도,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더 깊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짜릿하고 매력적인 희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김민형 저 | 인플루엔셜



Movie

안시성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다!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당 태종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의 변방 안시성을 침공한다.

20만 당나라 최강 대군 VS 5천명의 안시성 군사들.

40배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전사들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데...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끈 안시성 전투가 시작된다!

개봉예정(9월 19일)



KEPCO E&C News



● **업무처리 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취약부분으로 분석된 업무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8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바람직한 업무처리 문화 정착을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영관리본부 직위자 35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청렴 취약분야 분석 및 대응을 위한 내외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처리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책임회피 및 전가 △복지부동 △부당업무지시 등의 주제로 현황과 원인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책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조별 발표를 통해 개선 방안들을 공유하였다.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직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며 “직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 중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들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업무처리 문화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 **원자력본부, 청렴결의대회 개최**

원자력본부 청렴결의대회가 지난 7월 19일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평가 관련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와 청렴윤리 실천선서 및 청렴서약을 통한 원자력본부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대회에서 원자력본부 전 직원은 청렴선서와 청렴서약을 실시하며, 청렴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기업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원자력본부 전 직원이 청렴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은 명예이며 현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에너지신사업본부 운영방안 수립 워크숍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에너지신사업본부 운영방안 수립 워크숍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지난 7월 18일 열렸다. 워크숍은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사업본부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사업개발 확대 전략 △근무분위기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신사업본부 직원 모두의 청렴생활화를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 특강도 함께 열렸다.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듬어 나가고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자로설계개발단,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지난 7월 24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원자로설계개발단의 청렴정책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반부패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과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대회에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전 직원은 청렴선서와 청렴서약을 실시하였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청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간섭이 없는 공평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청렴은 실천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담아 청렴을 생활화 하자”고 당부했다.

●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회사는 제150회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2018년도 2분기) 행사를 지난 7월 13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설계품질 향상 방안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전문화의 의미와 정량화 방안(한국과학기술원 성풍현 교수) △설계초과자진에 대한 가동원전 내진성능평가(토목건축기술그룹) △안전성 향상을 위한 IHA 설계 개발 현황(기계설계그룹)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증진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천고등학교에서 R&E 프로그램 시행**

회사는 지난 7월 11일 김천고등학교에서 한전기술-지역고등학교 지역상생협력 프로그램(R&E : Research & Education)을 실시했다. R&E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지역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김천지역 고등학교(김천고/성의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 회사 인재개발교육원의 기계, 전기, 원자력, 토목 분야 전임교수 4명이 김천고등학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과제수행에 따른 연구활동, 과제검토, 기타 지원 및 전임교수 매칭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 **2018년도 5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 제5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모범직원	원자로설계개발단(원급)	이	형	래	기계설계그룹(수석급)	이 득 수
	신)기계배관기술그룹(책임급)	이	종	선	신)전기계측기술그룹(책임급)	김 창 현
	ICT솔루션실(책임급)	신	상	의	원)전기기술그룹(책임급)	김 승 용
친절직원	경영지원처(책임급)	권	병	인	원전안전센터(책임급)	이 선 규



꼭 필요한 접대라면?

불가피한 접대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 제공금지

1. 직원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접대



불가피한 접대가 종종 생겨서 걱정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접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대 받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한국전력기술은 윤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참사랑봉사단



회사는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밀반찬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 전달은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하여 강효현 원자로사업관리실장 등 4명이 참여했다.

김신환 전무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관장은

“기탁 받은 후원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재가장애인 30가정에 매주 1회씩 밀반찬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회사는 2017년부터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밀반찬을 제공하여 왔으며, 소속 직원들이 주 1회 2인 1조로 각 가정에 밀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정기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회사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유찬재 부장 자녀 : 7월 14일 더채플앳청담
- ▶ 유체계통설계그룹 오광석 부장 자녀 : 8월 18일 대전 호텔ICC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장경수 부장 자녀 : 8월 25일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부음

- ▶ 신사업)환경기술그룹 최병기 차장 장인상 : 7월 3일 공주장례식장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이응연 차장 장모상 : 7월 3일 장성장례식장
- ▶ 신사업)기계배관기술그룹 김정환 부장 장모상 : 7월 4일 공주 신풍장례식장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태환 과장 부친상 : 7월 4일 부천 성모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이연태 과장 부친상 : 7월 6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 신사업관리실 이철룡 부장 모친상 : 7월 13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 ▶ 글로벌마케팅실 진석일 부장 부친상 : 7월 1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 ▶ 신사업)환경기술그룹 진윤하 차장 시모상 : 7월 23일 경주동산병원
- ▶ 품질안전환경처 박상영 부장 모친상 : 7월 23일 한양대병원
- ▶ 유체계통설계그룹 서영남 부장 모친상 : 7월 24일 충남대학교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반달현 과장 부친상 : 7월 28일 대구 모례아장례식장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유찬재 부장 모친상 : 7월 29일 논산 황산장례문화원
- ▶ 계측제어설계그룹 정석환 부장 장인상 : 7월 30일 캐나다 토론토 현지장례식장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부음

김종덕 회원 본인상 : 6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윤경섭 회원 본인상 : 7월 24일 분당 아주대학병원



“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 조사기간 : '18. 3. 12. ~ '18. 4. 13.
- 조사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

■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 (광고 의무표시 사항) ①이자율의 범위, ②이자부과시기, ③부대비용 등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구 분	건수(비율)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153(68.9)
거짓·과장광고 표현	34(15.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8.6)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14(6.3)
기타	2(0.9)
계	222(100.0)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많아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약관,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약정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합니다.

▶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금리를 충분히 비교한 후 대출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대출금리 외 인지도, 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차주, 금액(채권 한도액), 근저당권 기간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합니다.

※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C**

아이스크림과 통닭

Writer 최 광 순 원전시후관리사업그룹 과장

유난히 바쁘고 정신없었던 하루
상처주고 상처받는 사이 마음은 어느새 주먹만 해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발을 멈추게 한 아이스크림가게

오늘은 웬지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사람과 딸아이와 함께 먹고 싶네

어느새 마음은 태양처럼 커지고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든 나를 바라보는데

아!

어릴 적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시던 그날
그날은 유난히 아버지가 힘드셨던 날이었구나

녹빛 축제

9월의 숲은 한해의 결실을 준비하느라 사뭇 분주합니다
한여름 뜨거움으로 여름 꽃을 피워 씨앗 잉태를 시작하고
숲친구인 곤충과 새들에게 씨앗을 기꺼이 먹이로 내어주고
태풍과 폭풍우 바람을 끄떡없이 견딘 열매를 품어 냅니다
태양이 준 에너지와 흙이 보탠 물은 충분한 영양이 되어
열매에 차곡차곡 쌓여 다음 해에 푸른 생명을 키워냅니다
숲의 나뭇잎은 열매를 위해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녹색의 모든 기능은 열매를 위해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숲의 나무는 가을 결실을 자축하듯이 녹빛 축제중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무장